정보

Ludwig van Beethoven: The Creatures of Prometheus, Op. 43

개요
작곡가: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작품명: The Creatures of Prometheus (Die Geschöpfe des Prometheus), Op. 43
장르: 2막 발레를 위한 관현악 무대음악
작곡 시기: 1800–1801년 초
초연: 1801년 3월 28일, 빈 Hofburgtheater
IMSLP: https://imslp.org/wiki/Die_Gesch%C3%B6pfe_des_Prometheus,Op.43 (Beethoven,_Ludwig_va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Creatures_of_Prometheus

Ludwig van Beethoven의 The Creatures of Prometheus, Op. 43은 Salvatore Viganò의 안무를 위해 작곡한 2막 발레다. 전곡은 서곡과 La Tempesta 서주에 이어 1막 세 번호, 2막 열세 번호로 이어진다. 첫 공연 전단은 프로메테우스가 두 조각상을 파르나소스로 데려가 음악과 예술, 여러 종류의 춤을 배우게 하는 우화를 전한다.

초연은 1801년 빈의 Hofburgtheater에서 열렸다. Beethoven-Haus Bonn은 작곡 시기를 1800년부터
이듬해 3월 이전으로 잡고, 이 작품을 베토벤의 유일한 전막 발레로 분류한다. 이 기관에 따르면 Viganò는 보통 여러 작곡가의 곡을 모아 발레를 만들었고, 한 작곡가에게 음악 전체를 의뢰한 작품은 이 발레뿐이었다 .

출판 정보

Artaria는 1801년 6월 발레의 피아노 편곡을 Op. 24로 출판했다. Beethoven-Haus Bonn은 이 자료와 함께 Hoffmeister und Kühnel의 관현악 성부, Breitkopf und Härtel의 총보를 초기 판본으로 열거한다. 이 자료들은 발레 음악이 피아노 편곡과 관현악 성부, 총보의 형태로 전해졌음을 보여 준다.

Salvatore Viganò의 원래 대본과 안무는 남아 있지 않으며, 초연 프로그램도 보존되지 않았다. 다만 첫 공연 전단의 짧은 줄거리 요약이 남아 있고, 후대의 재구성은 이 요약과 다른 기록을 바탕으로 무대의 큰 흐름을 풀어낸다. 각 음악 번호의 정확한 동작은 이 자료들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소요 시간

IMSLP는 전곡의 평균 연주 시간을 약 60–65분으로 제시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서곡만 약 5분으로 안내한다. Leif Segerstam과 Turku Philharmonic Orchestra의 전곡 녹음은 약 77분이다. 이는 악보의 평균 안내와 개별 녹음의 실제 길이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편성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바셋호른, 호른 2, 트럼펫 2, 팀파니, 하프와 현악기로 편성한다. 하프는 5번 *Adagio – Andante quasi Allegretto*에, 바셋호른은 14번 *Solo della Signora Cassentini*에 사용된다. 두 악기는 각각 지정된 번호에서 두드러진다. Hyperion의 음반 해설은 베토벤이 바셋호른을 쓴 작품으로 이 발레를 유일하게 든다.

줄거리와 번호 배열

초연 전단은 프로메테우스를 무지한 인간에게 예술과 학문, 올바른 삶의 규범을 가르치는 존재로 소개한다. 두 조각상은 생명을 얻고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뒤, 프로메테우스를 따라 파르나소스로 향한다. 그곳에서 아폴론은 암피온, 아리온, 오르페우스에게 음악을, 멜포메네와 탈리아에게 비극과 희극을 가르치게 한다. 테르프시코레와 판은 목가적 춤을, 바쿠스는 영웅적 춤을 맡는다. 전단의 요약은 신화 속 불을 훔치는 사건보다 예술 교육과 조화로운 공동체의 형성에 비중을 둔다.

악보에는 서곡, 서주, 1막 세 번호와 2막 열세 번호가 순서대로 놓인다. 아래 표는 IMSLP의 악보 목록에 실린 공식 표제와 빠르기 지시를 따른다.

구분	악보 표제와 빠르기
서곡	*Overture* — Adagio — Allegro molto e con brio
서주	*Introduction (La Tempesta)* — Allegro non troppo
1막 1번	Poco Adagio — Allegro con brio
1막 2번	Adagio — Allegro con brio
1막 3번	Allegro vivace
2막 4번	Maestoso — Andante
2막 5번	Adagio — Andante quasi Allegretto
2막 6번	Un poco Adagio — Allegro

구분	악보 표제와 빠르기
2막 7번	Grave
2막 8번	Marcia — Allegro con brio — Presto
2막 9번	Adagio — Allegro molto
2막 10번	*Pastorale* — Allegro
2막 11번	*Coro di Gioja* — Andante
2막 12번	*Solo di Gioja* — Maestoso — Adagio — Allegro
2막 13번	*Terzettino — Grotteschi* — Allegro — Comodo
2막 14번	*Solo della Signora Cassentini* — Andante — Adagio — Allegro — Allegretto
2막 15번	*Coro, Solo di Viganò* — Andantino — Adagio — Allegro
2막 16번	*Finale* — Allegretto — Allegro molto — Presto

서곡과 서주

서곡은 Adagio에서 Allegro molto e con brio로 나아가고, 곧바로 *La Tempesta* 서주로 이어진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프로그램 해설을 쓴 Marc Mandel은 도입의 짧고 강한 화음 뒤에 목관 선율이 나오고, 주제가 돌아올 때 C단조가 잠시 비친 다음 C장조의 밝은 흐름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한다. 짧은 도입과 활달한 주부의 대비가 무대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지는 폭풍 장면은 프로메테우스가 두 조각상에게 다가가는 상황을 그린다.

2막 : 음악과 춤의 교육

2막은 음악, 비극과 희극, 목가적 춤, 영웅적 춤을 배우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8번은 *Marcia*, 10번은 *Pastorale*이며, 11–15번에는 *Coro di Gioja*, *Solo di Gioja*, *Solo della Signora Cassentini*, *Coro, Solo di Viganò*처럼 집단 장면과 특정 무용수를 가리키는 표제가 나온다. Hyperion은 악보에 *Gioja*로 적힌 *Solo di Gioja*를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Gaetano Gioia와 연결하고, Cassentini를 이 발레의 주역 무용수로 설명한다. 이 표제들은 베토벤의 번호가 개별 출연자와 무대 동작에 맞춰 쓰였음을 알려 준다.

피날레 주제와 베토벤의 다른 작품

16번 *Finale*의 주제는 *12 Contredanses*, WoO 14의 7번, 피아노 변주곡 Op. 35, 교향곡 3번 *Eroica*의 마지막 악장에서도 쓰인다. 주제의 첫 등장 순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논의가 남아 있으므로 하나의 작품에서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발레의 피날레가 이후 여러 장르에서 되살아나는 주제를 무대 춤의 맥락에 놓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Alan Gosman은 이 네 작품을 하나의 주제를 여러 차례 탐색한 과정으로 분석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발레 피날레와 Op. 35는 주제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 ·변형하다가 코다에서 다음 전개 가능성을 열어 둔다. Gosman의 분석은 이 발레를 베토벤이 같은 재료를 발레 ·변주곡 ·교향곡에서 서로 다른 형식적 역할로 바꾸어 간 과정의 한 작품으로 이해하게 한다.

공연 관행과 현대의 재구성
서곡은 독립 연주회에서 자주 연주되지만 , 발레 전곡을 무대에 올리는 공연은 드물다. 2020년 Philharmonia 는 Esa-Pekka Salonen이 지휘한 전곡 공연에 Gerard McBurney의 새 해설 대본, Stephen Fry의 낭독, Hillary Leben의 애니메이션을 더했다. 이 공연은 남은 음악과 전단의 줄거리를 새 대본과 영상으로 오늘의 관객에게 전했다.

SF/Arts와의 인터뷰에서 Salonen은 재구성된 대본이 급진적이라고 말하고,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들을 ‘ 새로운 것 ’으로 읽었다. 그는 이들이 상류층에게 춤을 가르친다는 역전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는 초연 전단의 이야기와 구별되는 Salonen의 현대적 해석이다. 2020년 영상에 대한 Bachtrack의 리뷰는 Salonen이 미뉴에트와 영국식 콘트르당스 , 가보트와 렌틀러의 차이를 살려 궁정 춤과 대중적 춤의 대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조는 Salonen의 현대적 연출이 무용 양식을 읽는 방식을 보여 준다.

전곡을 담은 음반으로는 Charles Mackerras와 Scottish Chamber Orchestra의 1994년 Hyperion 음반, Leif Segerstam과 Turku Philharmonic Orchestra의 2017년 Naxos 음반이 있다. MusicWeb의 Robert Cummings는 Segerstam의 녹음에서 색채와 재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느린 번호의 템포를 넉넉히 잡았다고 평했다. 그는 이 완주본을 일부 번호를 덜어낸 이전 녹음과 비교한다.

주요 자료

Beethoven-Haus Bonn, The Creatures of Prometheus, Op. 43: 작곡 시기, 초연 ·의뢰 배경과
초기 판본 자료.
Neil Butterworth, Hyperion 음반 해설: 초연 전단의 줄거리, 원래 대본 ·안무의 소실, 악기와
무용수별 번호.
Marc Mandel, Boston Symphony Orchestra 프로그램 해설: 서곡의 길이와 도입부 ·조성 진행.
Alan Gosman, “The Prometheus Theme and Beethoven's Shift from Avoidance to Embrace

of Possibilities,” The New Beethoven: 네 작품에 걸친 주제의 재사용과 변주 과정.

Robert Cummings, MusicWeb International, Segerstam/Naxos 음반 평론: 전곡 녹음의 시간,
템포 선택과 연주 평가.
Philharmonia, 2020년 전곡 영상 안내: Salonen의 전곡 공연과 새 대본 ·낭독 ·애니메이션 구성.

Esa-Pekka Salonen 인터뷰, SF/Arts: 재구성된 대본과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에 대한 현대적 해석.

Edward Sava-Segal, Bachtrack, Philharmonia 영상 리뷰: 무용 형식의 대비와 Salonen의 지휘
해석.

Revision #1
Created 2026-10-04 10:11:58 UTC by 안준영

Updated 2026-10-04 10:11:58 UTC by □□□